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 CHANNEL

2022 APR  
Vol.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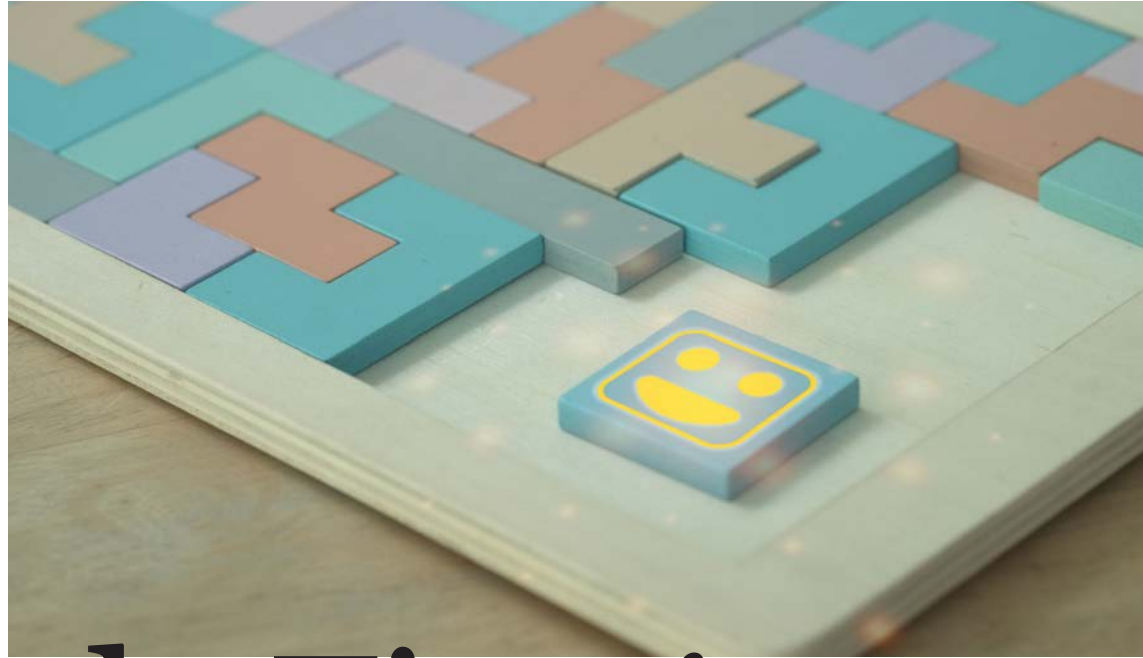


**People First!**  
**우리 모두 함께 Smile!**

삼정  KPMG

## COVER STORY

함께 웃고, 즐겁게,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 People First!

'People First!' 삼성KPMG는 모든 삼성인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GFC 내 삼성KPMG 업무 공간 전체를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즐거운 법인 생활을 위해 삼성인 첫 골프대회인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도 개최합니다.

자유롭고 스마트한 공간에서 함께 웃고, 소통하고, 화합하며  
우리들의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http://home.kpmg/kr/ko/home.html)

# CONTENTS

APRIL 2022 Vol.231  
삼성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행복한 일터

### People First 18

‘제1회 삼성KPMG 챔피언십’,  
본부 대표 선수를 찾아라!

### KPMG Story 20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나만의 고유함은 무엇인가요?

### Theme Interview 22

세계 여성의 날 ‘Together Campaign’!  
Inclusion & Diversity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

### 삼성인터뷰 24

해외파견 대비반에서  
역량 Up하고 해외파견 Go!

### 이동규의 두줄칼럼 26

포기와 집중

### 心 Care 28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Samjong News 30

‘Vision 2025’ 실현 위해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외

##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메타버스 시대의 기업 전략은?

### 08 Market Reader

VC·PE 투자로 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 10 Team Story

스타트업 성장을 함께하는 파트너,  
Startup Innovation Center

### 12 Client+

K-콘텐츠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프로덕션, 래몽라인

### 14 Expert's Advice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10p



18p



22p

## 메타버스 시대의 기업 전략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한 흑사병을 인류가 극복하는 데 무려 200년 이상이 걸렸다. 전염병으로 중세인들은 많은 부분을 잃었지만 흑사병 극복 후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 흑사병은 피렌체 등의 이탈리아 도시를 혁신적으로 바꾸며, 사회문화적 거대 조류를 변화시켜갔다. 2020년대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훗날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비즈니스가 가속도를 내며 발전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비대면 디지털 문화가 일상화된 사회에서의 메가 키워드 중 하나는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별 메타버스 비즈니스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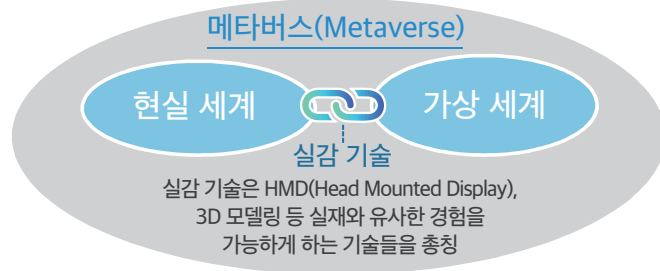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밀레니엄·Z) 세대의 부상과 VR·AR(가상현실·증강현실), 5G 등 기술적 진보와 기기·플랫폼·네트워크의 성장 또한 메타버스 시장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게임과 SNS 분야에 활용되던 메타버스는 오늘날 업무 플랫폼, 금융, 교육 등 여러 분야로 뻗어 나가는 중이다. 로블록스,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기업은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창조에도 지대한 관심을 지닌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플랫폼을 확장하고, 아이템 판매·광고 외에도 IP(지식재산권)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본연의 업으로 삼는 기업 외에도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를 기회를 찾는 기업들은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통·소비재와 금융 등 소비자와의 접점을 이루는 기업은 메타버스를 기업 마케팅 효과를 증진하거나, MZ 세대를 타겟팅하는 데 적극 활용 중이다. 가령 패션 기업 발렌시아가는 오프라인에서의 런웨이를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 소비자가 런



###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 메타버스는 물리적 실재(현실 세계)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매개·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된 세계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웨이를 게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게임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ICT(정보통신기술) 외에도 모빌리티,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 ○ 게임·엔터테인먼트 기업, '메타노믹스' 구축

최근 글로벌 주요 메타버스 게임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며 게임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2022년 2월 기준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5,510만 명으로 2년 전 2019년 1분기 1,580만 명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넷마블,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는 메타버스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테크 기업과 인수합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NFT에 암호화폐를 결

합한 P2E(Play-to-Earn) 게임 개발 등을 통해 메타버스상의 경제 시스템, 메타노믹스 구현을 위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향후 메타버스 비즈니스 확대와 함께 게임 플랫폼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처럼 단순 게임 기능을 넘어 이용자들의 새로운 커뮤니티이자 소셜미디어의 장으로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의 수익 창출 구조 및 방향성이 재편되고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게임 콘텐츠를 직접 생산·거래하며 메타노믹스를 구축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게임 기업들은 더 많은 이용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 게임 이용자들이 더욱 자유롭고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발달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및 신규 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자를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설계와 더불어 재미 요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이브(前 빅히트), 소니뮤직, 유니버설 뮤직그룹 등 국내외 주요 E&M(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은 공간(플랫폼 구축, 참여자(가상인간 구현), 거래 수단(NFT 사업 진출) 구축 등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발히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E&M 기업의 메타버스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향후 E&M 산업과 기술 기업 간의 결합이 심화되고, E&M 기업 성격이 콘텐츠 제작부터 기술적 구현까지 아우르는 종합 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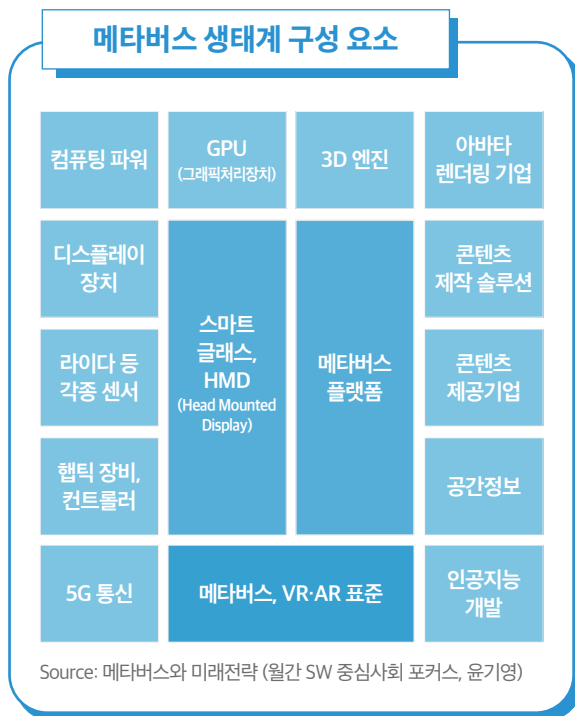
또한 기술 고도화된 E&M 기업이 선사하는 메타버스 놀이환경에서 사용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참여하며 체류 시간을 늘리게 되는데, 이는 타 산업에서도 E&M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E&M 기업은 성공적인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IP 확보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팬덤 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시장 선도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잘 구성된 메타버스 생태계를 타

산업의 테스트베드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사업 규모 및 범위 확장을 꾀해야 한다.

### ○ 모빌리티·제조업, 메타버스 활용 개발 및 생산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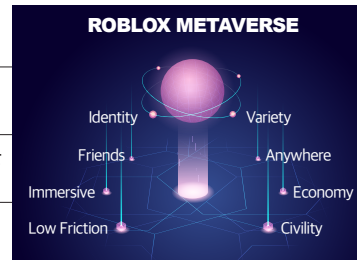
현대자동차그룹, BMW, GM 등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기업은 메타버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 제작 시뮬레이션, 신차모델 마케팅을 진행하고,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현을 위한 IT 인프라 및 콘텐츠 강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 조성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 모빌리티 산업과 ICT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차량의 성격 또한 데이터, 콘텐츠, 기술 등이 집결된 IT 플랫폼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빌리티 기업은 기술과 콘텐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부문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사용자 데이터 관리 및 활용능력 강화 등을 통해 도래하는 메타버스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조업 또한 임직원 교육·연수 등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R&D 디지털 트윈 공정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있다. 국내 철강 기업 포스코의 경우, 가상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며, 가상 제철소에서 수소 환원제철 기술을 시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강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메타버스 기술의 철강업 활용 사례를 연구하며, 최



**메타버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8가지 특성(Roblox)**

특성	내용
아이덴티티 (Identity)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는 특정 정체성을 가진 아바타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
친구 (Friends)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사람을 사귀고 사교 활동이 가능. 현실 세계에서 알던 기존 친구일 수 있고, 메타버스 안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음
몰입감 (Immersive)	몰입감 없이는 '내가 이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감각이 사라질 수 있음. 점차 실제 생활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어디서든 (Anywhere)	이용자, 개발자, 창작자는 국가나 지역, 문화권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가능
적은 마찰 (Low Friction)	메타버스 내에서 순식간에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마찰이 적어야 함
다양성 (Variety)	여러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필요
경제 (Economy)	메타버스 안에서 거래되는 통화가 있으며, 메타버스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순환하며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경제 요소가 있음
시민의식 (Civility)	메타버스 내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 규범을 지켜야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세계로 구현 가능



Source: Roblox, 삼정KPMG 경제연구원

적의 연원료 투입·배합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 메타버스 Biz 성공의 첫걸음,**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 요소와 고유 특성 분석부터**

메타버스 시대에서 기업이 수립할 수 있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메타버스의 특성과 생태계 구성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적, 비기술적 요소와 기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과 구분되는 메타버스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것이 이상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는 아이덴티티(Identity), 친구(Friends), 몰입감(Immersive) 등 메타버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8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둘째, 메타버스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고객경험(CX, Customer Experience)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업무 방식, 고객 서비스, 사업 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객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 상품을 다각도로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이 현실 세계에서 의사 결정과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 가치를 활용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기술의 독립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유저 기반의 증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공급이 필요하며,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해 현실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수수료 인하, 보상 등) 제도가 중요하다. 메타버스가 장기적 '트렌드'로 발전하며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지, 또는 일시적으로 주목받다가 사라지는 '패드(Fad)'로 남을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타버스는 팬데믹 속에서 부상한 강력한 물결의 흐름이며, 지금 그 물결에 대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부분이다.

**C O N T A C T U S**

**전자정보미디어센터 산업2본부**  
**김익찬 상무**  
Tel.02-2112-0468  
E-mail. ikchankim@kr.kpmg.com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 류승희 선임연구원**  
Tel. 02-2112-6744  
E-mail. hyojunglee@kr.kpmg.com · seungheeryu@kr.kpmg.com



## VC·PE 투자로 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벤처·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VC(Venture Capital)·PE(Private Equity)의 역할은 중대하다. 차별화된 사업 계획서로 투자자를 매료시키고,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신생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VC·PE 투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수년 후 잠재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VC·PE의 투자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업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VC·PE 자금이 현재 메타버스의 어떤 분야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변화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 ○ 차세대 금광으로 부상한 메타버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돈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벤처투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VC 투자를 많이 받은 분야 중 하나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종이 꼽혔으며,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호에서는 VC·PE 조사 기관인 피치북(Pitchbook)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4년(2018년 1월~2022년 1월)간 VC·PE 투자 유치에 성공한 150개의 메타버스 기업을 살펴봤다. 이 안에는 메타(前 페이스북)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로블록스 등의 이미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는가

하면, 아직 기업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보는 스타트업도 있었다. 분석 대상이 된 기업 대부분은 2010년대 후반,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 기업이었으며, 이들의 사업 모델 또한 광범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메타버스 개념이 모호한 측면도 있지만,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기업들은 서로 유사한 사업 모델로 경쟁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니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 기준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전 세계 투자사는 약 700여 개로 확인됐다. 또한 애니모카브랜즈(Animoca Brands), 바이낸스랩스(Binance Labs)와 같이 블록체인·암호화폐에 특화된 VC가 메타버스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VC·PE는 어떤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고 있을까?

VC·PE 투자 유치에 성공한 150개 메타버스 기업은 크게 5개 그룹으로 구분 지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그룹은 로블록스, 더샌드박스 등이 포함된 게임·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이다. 현재 VC·PE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은 P2E(Play-to-Earn)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파악된다. 게임 사들은 게임 내 토큰을 발행하고,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로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하고, 이를 암호화폐와 연계시켜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금전적 보상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게임 장르로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부터 캐주얼, 트레이딩 카드까지 다양하게 있다.

두 번째 그룹은 가상 공간에서 보다 몰입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기업으로 구성됐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스테이지11(Stage11)은 온라인 콘서트에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추가해 오프라인 행사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의 모먼트하우스(Moment House)는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가수와 배우, 창작자가 온라



**VC·PE 투자로 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분	주요 특징
① Game · Entertai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 토큰, NFT, 암호화폐를 활용해 P2E(Play-to-Earn) 게임 지향</li> <li>• 게임 장르로는 MMORPG부터 캐주얼, 트레이딩 카드까지 다양</li> </ul>
② Immersive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유사한 몰입 경험 전달</li> <li>• 360도 VR 영상 제작 기술로 매장 방문 없이도 생생한 브랜드 경험 제공</li> </ul>
③ Web 3.0 Tech Inf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타버스와 NFT는 Web 3.0로부터 파생된 서비스로 볼 수 있음</li> <li>• 기반 기술로는 탈중앙화 분산형 저장 파일 시스템(IPFS),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app) 등</li> </ul>
④ Social · Comme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커머스와 같은 수익 사업으로 확장</li> <li>• 기존 2D에서 3D로 서비스를 전환하여 보다 현실과 비슷한 가상 세계 구현</li> </ul>
⑤ N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화된 디지털 자산의 종류도 게임부터 디지털 아트, 수집품, 영화까지 다양</li> <li>• 독특한 콘셉트와 스토리를 담은 큐레이션으로 NFT 차별화</li> </ul>

Source: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VC·PE 투자를 받은 전 세계 150개 메타버스 기업을 5개로 군집화

인에서 행사를 열고,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셜 공간을 제공해준다. 아일랜드의 오르브미디어(ORB Media)는 360도 VR 영상 제작 기술을 통해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생생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세 번째 그룹은 차세대 인터넷으로 떠오른 Web 3.0과 관련된 기술 인프라 기업이다. Web 3.0은 중앙집권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분산화하여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메타버스와 NFT는 Web 3.0의 파생 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

네 번째 그룹에는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이다. 이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커머스와 같은 수익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존 2D 형태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3D로 전환하여, 보다 현실과 비슷한 가상 세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본인의 자아를 투영한 아바타의 활용도 활발하다.

다섯 번째 그룹은 NFT 분야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한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정부, 은행과 같은 기관이 거래의 신뢰를 부여한다면, 메타버스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이를 대신해줄 수 있다. 기업들은 독특한 콘셉트와 큐

레이션으로 NFT를 차별화하려 하며, NFT화된 디지털 자산의 종류도 게임부터 디지털 아트, 수집품, 영화까지 다양하다. 가령 미국 스타트업 마스4(Mars4)는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화성의 가상토지를 10만여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랜드를 NFT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오늘날 VC·PE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모색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메타버스 열풍이 한순간에 식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미래가 엿보이는 이유가 있다. 지금도 수많은 창업자들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고, 시장에서 쌓이는 수많은 실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경험은 어디로 증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상생활 속 현실이 되어 있을 수 있다.

**C O N T A C T U S**

**전자정보미디어엔터 산업1본부**  
**윤주현 상무**  
Tel. 02-2112-0374  
E-mail. joohunyoona@kr.kpmg.com



# 스타트업 성장을 함께하는 파트너, Startup Innovation Center

삼정KPMG는 지난 2016년에 스타트업 지원센터(Startup Innovation Center, 이하 SIC)를 발족하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Function이 SIC에 합류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에게 Audit, Tax, Deal, Consulting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Team Story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문가 필요해**  
최근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기술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급부상하는 스타트업이 다수 출연하고 있다. 이제는 유니콘 기업(10억 달러)을 넘어 데카콘(100억 달러)부터 핵토콘(1,000억 달러) 기업까지, 초거대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의 성장 속도 역시 빨라졌다. 과거 전통 기업들이 기업가치 1,000억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

기 위해 10~20년이 걸렸다면, 최근에는 기업가치 1,000억 이상의 예비 유니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년으로 빨라졌다.

성장 속도가 빨라진 만큼, 기업의 라이프사이클도 단축되고 혁신적인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전문적 조언을 구할 신뢰성 있는 파트너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조언을 얻을 파트너도 부족하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소통하기에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회계법인, 컨설팅, 법무법인, 정부 기관 등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팀과 서비스가 생기고 있다. 삼정KPMG는 2016년에 KPMG Global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SIC를 발족했으며, 최근에는 전사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 개편했다.

- **모든 Function이 하나 된 SIC,  
국내 스타트업 지속성장 기여할 것**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 탐험하고 발견하는 주체로, 삼정KPMG는 초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까지 자문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모든 Function이 합심하여 소통하고 있다. 국내에서 스타트업이 태동하던 2016년 SIC를 발족하여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 컨설팅(디지털, 사업모델, 시스템), 재무, 회계, 세무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후 초기 스타트업 단계부터 예비 유니콘, 그리고 유니콘 기업까지 파트너로서 라이프사이클을 함께 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Function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 Service로 제공 중이다. 삼정KPMG SIC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 개편한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자문하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 SIC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SIC는 초기 스타트업, 예비 유니콘, 유니콘 기업 등을 대상으로 Audit, Tax, Deal Advisory, Consulting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 Audit

- 임의/외부감사
- IFRS Convers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 IPO 지정감사 회계자문/재무제표/PA 등
- 연결프로세스 정립 및 회계정책 수립

### Tax

- 세무자문 및 해외 플립 자문
- 세무신고 지원 및 개선 & 체계 구축 및 효율화 지원
- 세무진단 및 조사대응
- 상속증여 관련 세무자문
- 해외진출 위한 세무자문 & 해외 IPO 관련 세무지원
- 글로벌 지배구조 개편 세무자문

### Deal Advisory

- Financing 및 기업소개
- M&A(소수 지분, 경영권 매각, 지배구조 개선 위한 Secondary Deal)
- 인수자문(IPO 준비 및 생태계 강화)
- Pre-IPO Financing

### Consulting

- 사업모델 컨설팅
- Commercial Due Diligence (CDD)
- Valuation, 신용평가 모델
- 대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연결 & 성장/신사업 전략
- IR Support(투자유치 지원, 대정부자금 확보 지원)
- CSO/CDO 서비스(BPO 개념 Retainer Fee 기반 주요 업무 제공)
- Go-To Market 전략
- ESG 경영자문 서비스
- Process Innovation & ERP 구축
- SCM, CRM 운영 혁신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및 구축
- 원가/재무 및 경영계획 고도화



## SIC의 각오 한마디

### Deal Advisory

#### 김이동 부대표(센터장)

yidongkim@kr.kpmg.com



“우리 SIC의 목표는 국내 스타트업을 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Audit 안창범 상무

cahn@kr.kpmg.com



“Audit은 초기 성장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 이슈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상황별 이슈 분석 및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회계자문과 유니콘&데카콘 기업 등의 IPO 성공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풍부한 미국상장사 감사 경험과 IPO 자문으로 스타트업들의 안정적인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 Tax 민우기 상무

wmin@kr.kpmg.com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세금신고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스타트업이 사업 본연에 집중하도록 돕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CS 최흥범 상무

heungbumchoi@kr.kpmg.com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스타트업은 혁신의 동인이었습니다. 성장 한계의 극복과 기업 가치의 증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응원합니다.”

# K-콘텐츠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프로덕션, 래몽래인

(주)래몽래인은 2007년에 설립되어, 2019년 위치워의 자회사로 편입돼 드라마 콘텐츠 제작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아시아, 남미를 포함한 해외 18개국에 수출한 ‘성균관스캔들’을 비롯하여, ‘시맨틱 에러’, ‘어쩌다 발견한 하루’, ‘산후조리원’ 등 30여 편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K-콘텐츠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지속 성장 중인 래몽래인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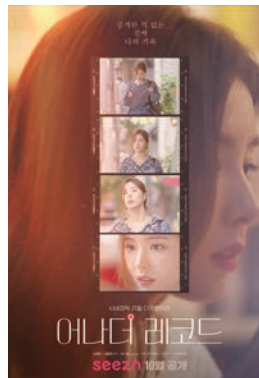


## ○ ‘성균관스캔들’,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등 K-콘텐츠 선도해와

래몽래인은 2007년에 설립된 방송 프로그램 및 공연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이다. 대표작으로는 2010년에 방영된 ‘성균관스캔들’을 시작으로 ‘어쩌다 발견한 하루’, ‘거짓말의 거짓말’, ‘산후조리원’, ‘시맨틱 에러’ 등 30여 편의 드라마를 제작해왔다.

최근 WATCHA에서 공개한 ‘시맨틱 에러’는 新장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며 지상파, OTT 통합 콘텐츠 랭킹순위에서 2022년 3월 한 달 내내 1위를 차지하며, N차 시청 열풍은 물론, 원작소설과 웹툰까지도 파급력을 입증하며 탁월한 콘텐츠 제작능력을 입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래몽래인 전경



어나더 레코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재벌집 막내아들



학교 2021



시맨틱 에러



잔혹한 인턴



뉴노멀진



○ **탄탄한 작가, 감독진 필두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뉴미디어 시장 진출**

래몽래인은 40여 명의 작가, 감독진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제작한 콘텐츠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뿐만 아니라 OTT(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TVING 등) 채널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재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마련했다.

글로벌 OTT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드라마의 밀도가 높아져 기존 미니시리즈(16부작)에서 숏폼드라마(6부작, 8부작, 12부작)로 진행 속도, 드라마 속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당 제작비는 2배 정도 높아졌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30여 편의 콘텐츠 제작 경험과 다양한 IP를 보유한 래몽래인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IP 축적을 하며 콘텐츠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래몽래인은 신인 작가 육성, 연평균 제작 편수 확대 등 꾸준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을 길러왔으며, 이러한 역량을 통해 2022년 송중기, 이성민 주연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라미란, 엄지원 주연의 드라마 '잔혹한 인턴', 변요한, 고보걸 주연의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뉴노멀진', '트랙터는 사랑을 싣고', '조국과 민족', '직필' 등 풍성한 라인업을 기반으로 산업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 **신예 작가 발굴 및 중소 독립제작사와 상생 가치 실현**

래몽래인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인 창작자를 발굴, 육성하는 정책으로 신예 작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작품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 독립제작사와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래몽래인은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며, 콘텐츠 기획개발부터 제작까지 신인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활동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신인 작가들의 데뷔 무대를 함께해 왔다. 대표적으로 '성균관스캔들', '엽기적인 그녀', '좀비 탐정',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있다.

○ **'꿈'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곳**

래몽래인은 '꿈꾸는 사람들=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회사의 사명처럼 꿈과 사람이 있는 래몽래인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다. PD, 작가, 연출가 등 콘텐츠 시장의 핵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래몽래인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나누며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래몽래인은 국내외 방송 및 OTT 시장에서 K-드라마를 기획부터 제작,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전문 스튜디오로 성장하여, OIMU(One IP Multi Use)로 과거 IP를 활용하여 위지웍스튜디오 등 관계 회사와의 밸류체인을 통해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난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시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ISSB 공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삼정KPMG의 ESG 정보공시/인증 CoE 리더인 김진귀 전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다.



## Q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어떤 곳인가요?

현재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해 기후에 대한 데이터의 정의와 기준이 미비하고 기후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공시의무요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해 순차적으로 공시기준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시 환경과 기후 관련 기준을 2022년 중후반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무정보와 지속가능공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이 아닌 투자자 중심으로 기업가치 변동요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 Q2 ISSB 공시기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없나요?

지금도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수준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ISSB 공시기준이 나오면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 관련 공시항목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분석은 투자자들에게는 최상의 평가도구가 되겠지만,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시 강화 추세는 ESG 공시의 제삼자 검증과 맞물리며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ISSB 공시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수집 절차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기획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Q3 ISSB 공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가능보고서 발행을 위한 제대로 된 기획과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경영전략과 ESG 공시 지표 간의 연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공시기준과 ISSB 공시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추가 공시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인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평가 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보고 절차를 조직 내 공식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시정보 및 데이터가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 및 보고되는지, 통제 미비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년 산출기준이 변경되었던 공시정보를 점검해보고 '그린워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제삼자 검증을 통해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보고 체계상 미비점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ESG 정보공시/인증 CoE 리더 김진귀 전무

Tel. 02-2112-0223

E-mail. jinkwi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1월 24일 게재된 내일신문 [김진귀의 ESG경영]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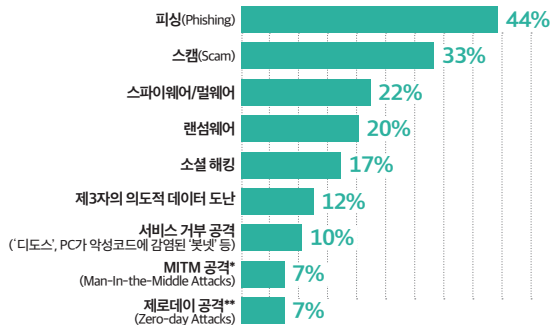
기술력의 발달로 다양한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콕핏과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화폐와 NF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타노믹스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 사이버 공격 유형 다변화돼... 정보보안·클라우드 보안 중요성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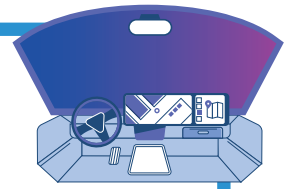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사이버 위협 역시 진화 중이다. KPMG가 C-level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들은 피싱(44%), 스파이웨어/멀웨어(22%), 랜섬웨어(20%) 등 다양한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보보안·OT(생산운영기술) 보안·클라우드 보안 등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리질리언스 기반의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전략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개월간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유형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까?



Source: A triple threat across the Americas: 2022 KPMG Fraud Outlook  
 Note: \*MITM 공격은 중간자 공격으로 불리며, 네트워크 통신을 조작하는 공격 방법.  
 \*\*제로데이 공격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뒤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가 발표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사이버 공격을 하는 방식

## 디지털 콕핏 (Digital Cock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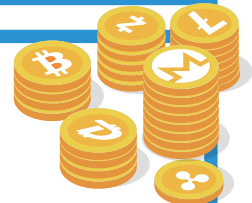


전기차가 상용화된 이후 자율 주행 역시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디지털화된 자동차의 내부 운전공간을 뜻한다. 운전자가 자동차 내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 원격 회의까지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이 높은 공간을 배치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삼성전자의 자동차전장사업 자회사 하만(HARMAN)이 독일의 증강현실(AR) 기술 기업 '아포스테라(Apostera)'를 인수하며 '디지털 콕핏' 영역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만은 디지털 콕핏과 자동차용 무선통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차량 내 경험' 관련 기술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 메타노믹스 (Metanomics)



초월적인 가상 현실이란 '메타버스(Metaverse)' 앞글자과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의 뒷부분을 조합한 합성어로,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대체 가능한 통화인 가상화폐와 대체 불가능한 가상자산인 NFT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같이 생산과 소비, 투자와 거래가 가능한 순환 경제 시스템인 메타노믹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대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축통화를 만들거나 현실 세계의 재화와 연동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메타노믹스는 아직 초기 단계로 국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 NFT를 발행하며 메타노믹스에 뛰어들고 있다.

# Happy workplace





## People First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본부 대표 선수를 찾아라!

18

## KPMG Story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나만의 고유함은  
무엇인가요?

20

## Theme Interview

세계 여성의 날  
‘Together Campaign!’  
Inclusion & Diversity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

22

## 삼정인터뷰

해외파견 대비반에서  
역량 Up하고 해외파견 Go!

24

## 이동규의 두줄칼럼

포기와 집중

26

## Samjong News

‘Vision 2025’ 실현 위해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外

30

## 心 Care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28

#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본부 대표 선수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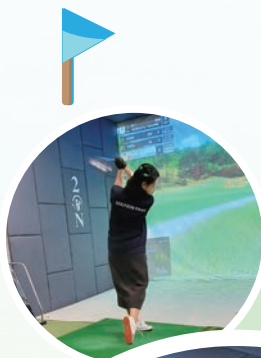
4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에 앞서, 골프 실력을 겸비한 대표 선수를 찾기 위한 법인 내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2월 말부터 예선 경기를 치르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진 본부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본부 내 예선 경기를 마친 B&F본부, SCG본부, Deal Advisory3본부 예선전 현장을 살펴보고, 구성원들이 들려준 현장 분위기와 대회에 임하는 각오도 들어본다.

B&F본부

## ○ 예선 경기는 물론 본부원 이벤트까지, 재미 가득!

안녕하세요! 골프 시작 이래로 만년 유망주, 열정만은 김효주, B&F1 이지현 매니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본부원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신 덕분에 본부원들과 교류하고, 화기애애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내년에도 개최된다면 다음 번 대회에서는 일취월장한 모습으로 상위권에 꼭 들고 싶습니다.

골프에 진심하신 B&F1 조원덕 본부장님의 열정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 본부에는 정말 쟁쟁한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선발되지 않았지만 본부 대표로 선발된 분들은 열렬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크는 B&F Number One, 파이팅!



이지현 S.Manager

법인에서 열리는 챔피언십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 골프를 시작했고, 학창 시절 내내 골프와 함께 해왔거든요. 우리 본부는 대표 선수 및 우승자 타수 맞추는 내부 이벤트도 진행해 많은 본부원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특히, 예상 타수가 6언더파에서 보기플레이까지 다양하게 나와 예측하는 재미를 더했던 것 같아요. 예선 경기 당일 숏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본부 대표로 선발되어 기쁘네요. 부담도 크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본부장님을 비롯해 많은 본부원들이 서포트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연락이 오셔서 잘해내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본부 이름을 빛내고 오겠습니다.



박주경 S.Senior



‘삼정KPMG 챔피언십’이 궁금하다면?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ople First

○ **응원하며 독려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경기**

우리 본부의 예선전은 부장 이상의 Senior팀, 매니저급 이하의 Junior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동석 부대표님을 비롯한 본부의 파트너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함께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항상 친구들과 편한 마음으로 골프를 쳤었는데, 예선 현장에 본부원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살짝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최종 접전 끝에 대표 선수 선발은 무산되었지만,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담당하는 ESG & Strategy 부문 외 다른 부문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지만, 삼성KPMG 챔피언십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골프를 즐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골프를 즐기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성욱 Consultant

SCG 골프



예선전 현장 분위기는 즐겁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해주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특히 문상원 상무님, 함영은 부장님께서 예선 일정 및 장소 준비 등 서포트해 준 덕분에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예선 당시 접전도 펼쳐졌어요. 최종 본부 예선 시, 마지막 18홀까지 동점 상황으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래서인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대표 선수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연장전까지 간 사투 끝에 안타깝게 더 이상 함께 플레이하지 못하게 된 문성욱 컨설턴트 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CG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겠습니다!



장재명 Manager



○ **골프 실력과 무관하게! 모두 즐길 수 있었던 시간**

우리 본부는 예선전에 앞서 골프대회 참가 의사 서베이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골프 경험이 없는 사람도 함께 즐기도록 '스크린 골프 맛보기' 옵션도 추가했지요. 그 결과 골프 실력에 무관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선전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들이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현장 열기가 대단했어요. 이번 기회로 골프라는 주제로 새로운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 골프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골프 실력과 무관하게 즐거운 경험을 했기에, 앞으로 펼쳐질 본 대회가 더욱 기대돼요. 우리 DA3본부 대표 선수님들!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골프대회 우승을 향해 파이팅!



이지혜 Manager



와, 예선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던 만큼 정말 즐거웠어요! 한운성 상무님께서 진행을 맡아 주셨고, 위원부터 이사님까지 다양한 직급의 본부원들이 참여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예선 경기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됐는데요, 조를 나누고 동일한 맵에서 같은 조건으로 플레이한 후 상위 스코어 4명이 최종 선발됐어요. 그 중에 제가 선발되었다는 것이 참 기쁘네요! 하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 만들어요~! 우리 DA3본부 파이팅!



김희호 Analyst

Deal Advisor부3본부



#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나만의 고유함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하루, 삼정인들은 어떻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KPMG Story>에서는 삼정인들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고유함은 무엇인지, 꼭 실천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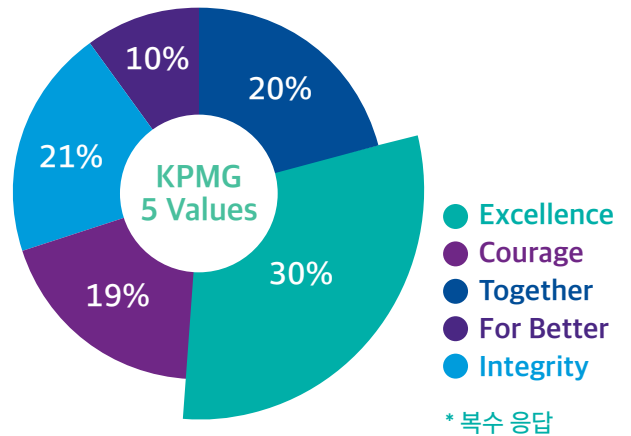
##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하는 가치는?

### ‘Excellence’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자신이 건축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매일 아침 시간을 사소하지만 건축과 관계없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예술적 사색으로 보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나만의 의식처럼 반복하고 실천한다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삼정인들은 하루 중 꼭 지키는 본인만의 행동 습관이 있을까?  
이를 위해 어떤 가치를 실천하고 있을까?**

**이벤트 결과, KPMG 5 Values 중 ‘Excellence’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많은 삼정인들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Excellence’ 가치를 실현하며 하루하루 성장과 발전을 이뤄가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나채원 Associate (C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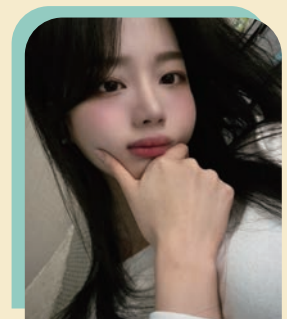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나만의 고유함을 꼽자면 ‘동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시즌은 동기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유대감도 쌓고, 동기애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동기들뿐만 아니라 팀원들과도 같이 고생하며 ‘Together’의 가치를 더욱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동기들이 곧 나의 고유함

### ‘운동으로 활력을’

저는 운동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 일상의 힘을 얻고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얻음으로써 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 3회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처음 접해보는 테니스를 배우며 테린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골프나 사이클, 클라이밍 등 새로운 운동 분야에 도전하고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일상 속 특별함을 찾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 (Excellence)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수경 Analyst (Deal Advisory1)





**권정원 S.Manager (Tax2)**



**'하루 감사 나누기'**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이 함께 누워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개씩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는 날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도, 오늘 하루도 건강해서 감사,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하루 일상을 무사히 끝마쳐서 감사, 따뜻한 이불 덮고 잘 수 있어서 감사 등 일상의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근사한 것으로 마치면, 다음 날 또한 근사할 것이라는 자신만의 믿음과 용기(Courage)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되새김'**



**박소은 Manager (IA)**

저는 매일 밤 1시간 정도는 좋아하는 와인 한 잔과 함께 그날의 일과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내일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Together', 고객과 본부원들과 보낸 시간들에 대해 혹시 내가 말한 정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Excellence',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사람이며, 그렇기에 더 고뇌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미화 S.Consultant (Digital Tech)**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는 'For Better'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활동으로 특별함을 찾고 있어요. 먼저, 사내 봉사활동 중 하나인 '나무심기' 봉사를 통해 노을공원에서 삽으로 땅을 파서 직접 나무를 심어 보기도 하고, 나무심기 키트를 배송받아 단풍나무와 도토리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보살피고 있어요. 이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클린올레'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을 치유하는 동시에 푸른 제주의 자연 속에서 제 자신도 치유하고 있어요!

**'글 쓰며 기록하다'**



**정상혁 Consultant (SCG)**

저는 글을 쓰며 일상의 특별함을 채우고 있어요. 퇴근길, 하루 일과를 떠올리며 업무 중 배운 것 혹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기록하거나, 일상에서 느낀 사소한 감정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날들도 특별한 점이 하나씩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를 되돌아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저만의 고유한 활동이 향후에는 성장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cellence', 앞으로도 꾸준히 기록하며 성장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 세계 여성의 날 ‘Together Campaign’! Inclusion & Diversity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



서지희 부대표  
(Q&RM)

## ◦ 기단녹장, 강점을 바라보고 발전시키는 것!

KPMG Value 중 ‘Together’라는 가치의 정의는 ‘상호 존중하고, 각각의 다름에서 강점을 이끌어낸다’입니다. 우리 법인은 인재 존중 사상으로 ‘기단녹장’(棄短錄長,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한다)을 중요시하는데요, 이는 동서고금을 떠나 인재를 육성하는 기본 철학이 각자의 재능을 강점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상에 매료되어 2019년에 Gallup의 강점진단 코칭 과정을 이수했고, 그 후 팀원들에게 강점진단을 받도록 하고, 1:1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팀원들과 업무 이야기에서 벗어나 온전히 각자 자신의 재능과 삶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원들의 강점들이 눈에 들어왔고, 일하는 방식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관점으로 팀원을 바라보고, 팀원의 방식을 제 방식에 끼워 맞추려 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큰 변화를 만들어 냈어요. 바쁘더라도 연간 정기적으로 팀원들과 코칭 대화를 진행하며 대화를 기록하게 됐어요. 저에게 없는 강점을 가진 팀원, 각자 다양한 강점을 지닌 팀원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다양한 강점이 우리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ogether’ 실천 위한 Tip** “업무상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들고 온 ‘사람’에게 초점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일들이 상호 간의 신뢰 속에 이슈의 실마리가 있거든요.”



## ◦ ‘우수인재 채용’이라는 하나된 목표로!

저는 People, Performance & Culture를 책임지는 인사팀에서 신입 회계사 공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채 시즌이 되면 PPC 전체 팀원들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채를 함께 진행하는데요, 각자의 업무가 있지만 ‘우수인재 채용’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배 양성을 위해 현업에서 힘써 주시는 300여 명의 TFT 멤버들도 빼놓을 수 없죠. 올해도 PPC, TFT 멤버들과 함께 2022 신입 회계사 공채를 위해 파이팅!

**‘Together’ 실천 위한 Tip** “저는 ‘Everyone a Leader’,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팀원들과 현업 멤버들 덕분에 7년 연속 신입 회계사 최다채용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유안나대리  
(PPC)

Theme Interview

KPMG는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Inclusion & Diversity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주제는 ‘Gender equality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정인들은 업무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Together’ 가치를 어떻게 실천해왔을까?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온 삼정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되는 동기들!

법인에 입사한 지 2년이 되어가네요. 그리고, 2020년 9월 23일에 함께 입사한 동기들과는 두 번째 감사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첫 시즌은 저를 포함한 동기들 모두 어리둥절하며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동기들과 질문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나름의 ‘집단지성’으로 극복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 맞이한 두 번째 감사시즌에는 처음보다 업무능력이 향상되어서인지, 전년보다 공유하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바쁜 시즌 업무 중 혼자 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곤 하죠. 그럴 때마다 동기들을 찾아 어려운 회계처리, 감사절차, 관련 기준 등을 물어보고, 솔루션을 얻고 있어요. 업무 지식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동기들에게 웃음과 활력을 자주 얻을 수 있어 힘이 됩니다. 소소한 일상도 공유하고, 좋은 일은 축하하고, 힘든 일은 위로해주며 함께 헤쳐 나가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CM2 동기들아, 고마워! 힘내자!



주영규  
Associate (CM2)



**‘Together’ 실천 위한 Tip** “동기 모임을 활성화해보세요. 동의회 회장 및 집행부를 기획해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 덕분에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는 끈끈한 동기가 되었답니다.”

표은송 S.Analyst  
(Deal Advisory4)



○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발전해 가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팀원들과 서로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주며 함께 발전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Deal 업무 특성상, 고객사의 의뢰 및 요청에 따라 연중 바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 주된 업무 수행 중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 요청이 발생하면 당장 대응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팀원들이 ‘내 일, 네 일’ 구분 없이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참여하는 분위기여서, 발전적인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러한 방법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팀원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 업무에 임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팀원분들의 인사이트에 놀라고, 그것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Together’ 실천 위한 Tip** “우리 팀은 업무 할 때는 화기애애하지만, 사생활과 취향 등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표현하지 않으려 해요.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해외파견 대비반에서 역량 Up하고 해외파견 Go!



## ● 우물 안 개구리, 세상을 느끼다!

저는 2018년 해외파견 대비반에 참여하며, 3개월간 원어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늘 글로 접해온 영어에 대해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토의하고, 실전 감각도 키우며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사실, 토요일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업에 참여한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해외 파견이라는 목표를 가진 동료들과 교류하며, 다시 한번 목표를 상기시킬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후 2019년 8월, 호주 시드니의 KGSG ASPAC에 2년간 근무하며, 새로운 감사플랫폼(KCw) 및 감사방버론(KAEG)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했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KPMG 동료들과 협업하며, 각 나라들의 일하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도 한층 넓어졌어요. 사실, 그 흔한 어학연수 한번 못 가본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제가 세상을 넓게 보는 시야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마음의 그릇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일단, 파견을 준비한다면 해외파견 대비반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참여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남규 S.Manager (B&F1)

## ●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저는 총 3번의 해외파견 대비반을 경험했는데, 파견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2018년 여름, USMP 대비반이 있었던 2018년 겨울, 런던 파견 전 2019년 여름입니다. 일단 대비반의 가장 큰 장점은 어학 능력 향상이에요. 2019년 비자 문제로 미국 파견이 취소되어, 다시 파견을 준비하던 때 그해 여름 곧바로 파견 기회가 생겼어요. 마침 대비반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7~8월에 연이은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KPMG 영국 런던 오피스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런던 오피스에서는 Financial Service - Insurance Audit 부서에서 In-charge 역할을 맡아 두 번의 기말감사 시즌을 거치고 복귀했어요. 대비반의 또 다른 장점은 평일에는 업무로 정신없이 보냈다면, 주말만큼은 저를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감도 많이 높일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제가 경험한 대비반과 파견의 경험을 후배 회계사들에게 전하고, 열정 있는 후배들이 그 좋은 기회를 갖도록 돕는 좋은 멘토가 되고 싶어요.

허예상 S.Manager (B&F2)





삼정KPMG는 각국의 Korea Desk를 비롯해, DA Swap, Tax Trek 등 Global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해외파견을 희망하는 삼정인을 위해 해외파견 대비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파견 대비반을 통해 파견을 다녀온 삼정인들과 현재 파견 중인 삼정인들을 만났다.

\*해외파견 대비반 문의: PPC 이동희 대리 dlee56@kr.kpmg.com



○ **한국에서 느끼지 못할 소중한 경험들!**

저는 2020년 해외파견 대비반을 통해 KPMG 말레이시아로 파견 오게 됐어요. 당시 대비반을 통해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영어 수업을 받으며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어요. 최대 인원이 4명이라 소규모 집중 수업을 받아서 좋았고, 무엇보다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활용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파견 중에 저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많이 깜짝 놀랐어요. 하하.

파견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양한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회계사로서 느끼는 부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한다 해도 문화적 차이에서 느끼는 다른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은 한국에서만 지냈다면 몰랐을 부분이라 생각해요. 해외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남은 파견 동안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인에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현 Manager (KPMG 말레이시아 오피스)**

○ **다양성 경험하며 포용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다!**

저는 3년간 대비반에 참여하며, 파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해외파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현재 미국 뉴저지 KGSG Audit에서 근무 중인데, 다양한 국가에서 파견 온 동료들과 협업하며 다양성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며 습득하는 과정에서 포용의 참된 의미를 되새긴 것 같아요.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고, 전문가로서 더욱 성장하고 안목이 넓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파견을 통해 새롭고 짜릿한 경험을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의 많은 분들에게도 해외파견을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제가 해외파견이란 꿈을 이루는 데 큰 힘을 준 해외파견 대비반 참여를 추천해요. 대비반은 파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해준 원동력이었어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최근 귀임한 삼정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고, 해외파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높일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대비반 참여로 해외파견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랄게요!

**김성아 Director (KGSG Audit)**



선택이란 고난도의 포기 행위다.  
포기한 자만이 집중할 수 있다.



## 포기와 집중

국내 경영 현장에선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크게 유행이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일용 ‘포기와 집중’이 타당하다. 사실 선택이란 고난도의 포기 행위이기 때문이다. 원래 뷔페식보다는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는 식당에 가는 게 고수다. 비싼 생선회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모듬회는 시키지 않는다.

일찍이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M.E.Porter) 교수는 <경쟁전략론>에서 “전략이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고 버릴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갈파하였다. 결혼이나 진학과 같은 인생길도 복기해보면 선택의 과정은 곧 포기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의 핵심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다. 마케팅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차별화(differentiation)’ 개념도 같은 차원이다. 미국은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포기와 집중 전략을 성공시킨 나라다. 지난 시절 자신의 경쟁력 없는 과목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전공 과목인 IT 엔지니어링에 초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초일류국가가 되었다.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 남보다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과목 평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밀며 어느 한 분야에 특출한 어린 천재들을 다 죽여 왔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MIT 교수도 했을 친구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실업자가 되어버린 경우도 솔하게 보아왔다.

요컨대, 병법의 최고수인 손자를 필두로 한 초절정 고수들의 가르침 요지는 안 되는 것을 부여잡고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애쓰지 말고 자신만의 장기를 더욱 발전시켜 남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들어나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수는 남을 연구하고 고수는 나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세계적인 초우량 서비스 기업 중 여기에 딱 맞는 ‘전략 덩어리’가 바로 사우스웨스트항공(SWA)이다. 직원 만족과 경비 절감을 위해 수백 대의 비행기는 모두 보잉 737 기종이다. 그러나 여기는 보딩 패스도 없고 식사도 안 주며, 다른 항공사와의 화물 연대도 없다. 그러나 이곳은 항공사 평가의 세 가지 축인 정시도착, 수하물처리, 고객 서비스를 모두 석권해 온 트리플 크라운 회사로서 ‘편(fun) 경영’으로도 유명하다. 학교 성적으로 보면 10개 과목 중에 대다수는 과락인데, 소수의 전공필수 과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포기와 집중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꽃들도 진화과정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숙명을 지녔다. 화려하면 향기가 없고 향기가 강하면 볼품이 없다. 우리말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팔방미인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다 할 명함조차 못 내미는 걸 보면 역시 인생은 과감한 포기와 결단의 함수다.

무릇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법이다. 여전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속고 있는 단점 개선이란 화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하늘이 주신 자신만의 달란트를 조기에 발견해내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길이다.

결국 포기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자만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을 움직이는 50인’에 등재된 교보 광화문광판에 두줄칼럼 중 대표작 <겸손>이 최종 선정되어 주요 도시에 전시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가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도피 혹은 투쟁'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각자가 지닌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무엇일까?  
과연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대처 방법일까?  
이번 호에서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만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빈번하게 접하는 것임과 동시에, 겪어도 겪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일 테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맹수와 뒤섞여 거친 환경에서 함께 살아온 원시시대부터 지속되어 왔다. 위협적 상황에 매우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 메커니즘을 '투쟁fight-도피flight' 반응이라고 일컫는다.

눈앞에 엄청난 몸집의 동물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 서 있다. 머리털이 곤두서는 기분에, 심장

이 엄청난 속도로 뛰고, 식은땀이 날 것이다. 이처럼 전쟁에 몰입하는 몸의 반응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사람은 맞서 싸우거나(투쟁) 혹은 줄행랑을 치게 된다(도피). 원시시대의 스트레스는 비교적 단순하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면,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점점 정교화되고 일상 속에 산재해 있는 까닭에 스트레스 반응이 조금 복잡하다. 본능적인 투쟁-도피 반응 외에도 경직, 회피의 반응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 ●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투쟁-도피 반응

눈앞에 당면한 명확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투쟁-도피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는데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내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재빨리 차를 피한 후, '항의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운전자에게 항의를 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내가 맞서 싸

울만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반드시 그 스트레스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사람들은 투쟁-도피 반응을 하게 된다. 심리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투쟁-도피 반응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몸을 이완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과잉 각성 상태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모드가 이완되지 않은 채 만성적으로 일상화가 되면 일상 중 차 경적 소리, 동료와의 마주침 등 지극히 흔한 일에도 마치 사자라도 마주친 것처럼 전투 모드를 취하게 된다. 자신의 업무 스위치 ON 모드가 주말이나 휴식 시간에도 쯤처럼 꺼지지 않는 느낌이라면 의도적으로 OFF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투쟁-도피 반응 모드가 익숙해져 과각성 상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은 점수, 기록 내기 등의 경쟁적 운동보다는 요가, 가벼운 산책 등의 이완을 돕는 운동이 더 도움이 된다.

**○ 쓰러지거나 혹은 모른 척하거나: 경직 반응, 회피 반응**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두렵고 심리적으로 압도된 나머지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스트레스 상황에 긴장 상태인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지만, 종종 과도하게 이완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부교감 신경 중 미주 신경 흥분이 높아지면서 저혈압, 실신과 같은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경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직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반응을 '회피 반응'이라고 한다. 투쟁-도피 반응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에, 현대인들은 회피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화가 나지만 일단 그냥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알코올, 담배, 과도한 식탐, 쇼핑 중독 등 일시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다른 활동으로 즉각적 만족을 느끼는 것 또한 스트레스 회피 반응이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더라도 영원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건강한 해소가 아니라 단순 감각충족적 행동을 통한 회피 반응에 가깝다면, 감각충족 이외에도 신체적 활동, 정서적 교류 활동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응책은 대체로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 반응이 얼마나 건강

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무엇이든 균형이 중요하다. 평소 과잉각성 되는 경향이 많았던 사람들은 신체심리적 이완과 관련된 활동을 해 보고, 피하거나 다른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했던 사람들이라면 의도적으로 활력을 주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 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 ‘Vision 2025’ 실현 위해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ICE3본부 & ESG CoE팀 신설 및 공공 인프라 DA6본부로 통합

삼정KPMG가 4월 1일자로 법인 조직 개편 및 파트너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Vision 2025’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Function Head와 본부장, 파트너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행됐다.

먼저, IT 산업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본부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CE3본부를 신설했다. ICE3본부를 이끌어 갈 본부장으로는 전철희 부대표가 임명됐다.

또한, 기존 B&F1본부에 소속된 지속가능보고서팀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Head of Audit 직속의 Audit ESG CoE팀을 신설했다. 팀 리더에는 황정환 상무가 임명돼, 팀을 이끌어 간다.

아울러 Deal Advisory 내 공공 인프라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Deal Advisory2 본부의 공공 인프라 전문 인력을 Deal Advisory6본부로 통합했다. Deal Advisory6본부의 새 본부장으로는 김효진 전무가 임명됐다.

### 신임 본부장 및 팀 리더



ICE3  
본부장  
전철희 부대표



Deal Advisory6  
본부장  
김효진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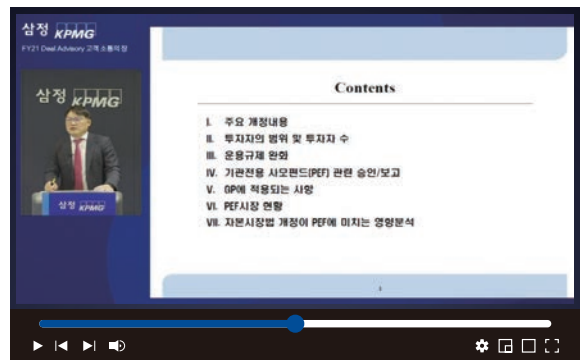


Audit ESG CoE  
팀 리더  
황정환 상무

## Deal Advisory 고객 소통의 장(場), 팀즈 라이브로 진행

삼정KPMG는 지난 3월 18일 ‘Deal Advisory 고객 소통의 장(場) -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및 PEF에 미치는 영향’을 팀즈 라이브(Teams Live)로 진행했다.

전체 파트너와 Deal Advisory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 현상진 대표가 강사로 나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및 PEF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 PEF 관련 주요 개정(사모펀드 분류 변경·투자자 수 확대·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폐지) 사안을 살펴봤다. 말미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GP, PEF, 투자, 총 세 가지 측면에서의 PEF 시장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및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동참 김교태 회장, “산불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삼정KPMG는 지난 3월 8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동해안 산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과 대피 시설 운영, 쉼터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아울러 삼정KPMG는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5만 달러를 국제 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구호금은 긴급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영양실

조를 막는 치료식을 비롯해 응급의료 서비스 및 교육 물자 지원 등 구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구호를 위해 기부에 나서게 됐다”며 “이웃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삼정KPMG 임직원의 따뜻한 위로가 당기를 바라고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People First, 전 임직원에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People First’, 인재 존중 문화를 추구하는 삼정KPMG는 지난 3월 31일 전 임직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했다.

이번 상품권 증정 이벤트는 2021 사업연도가 마무리되고, 2022 사업연도를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자 진행됐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며, “희망찬 도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상품권 선물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인재가 중심인 ‘People First’를 추구하며, 2022년에 GFC 내 법인 사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하고, 4월에는 임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골프대회 ‘제1회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 [Notice] ▶ 삼정KPMG, 매일경제와 ‘ESG 웨비나’ 개최

- 일시: 2022년 4월 27일(수) 14:00 ~ 17:00
- 신청: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
- 문의: 신정민 과장 (02-2112-7731, jungminshin@kr.kpmg.com)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